



# 4년 만에 꽃잔치... 활짝 피는 인천의 봄

### 인천대공원에서 4월7일~23일 벚꽃 축제 기간 중 개최 마가렛 등봄꽃 21종 1만 본 심어...글쓰기 대회도

인천광역시시는 4월7일부터 23일까지 인천대공원 꽃전시관에서 '2023 인천 꽃 전시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꽃 전시회는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와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푸른인천글쓰기 대회'와도 병행해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온 인천 꽃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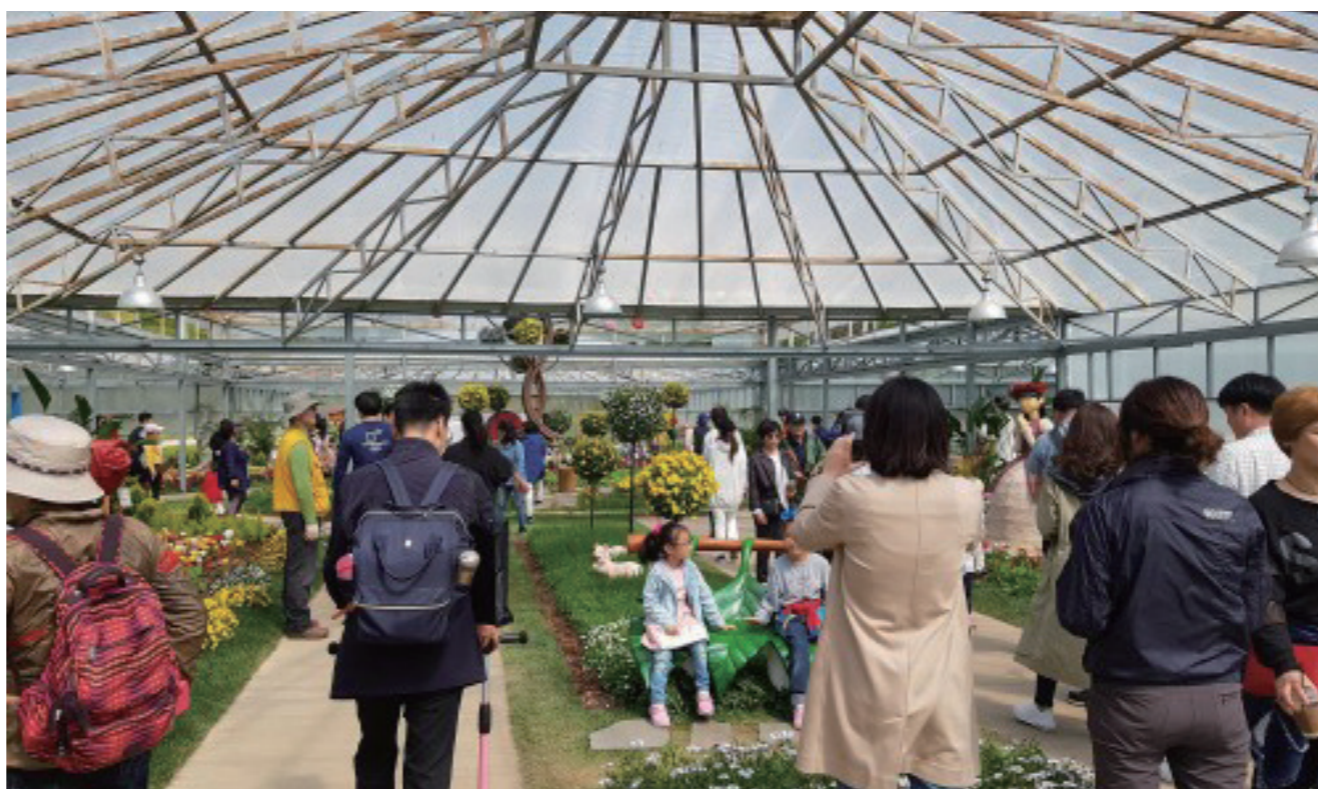
그동안 봄이 와도 코로나19로 봄의 정취를 느끼러 나갈 수 없었던 시민에게 이번 꽃 전시회는 따뜻한 봄햇살 아래에서 즐기는 만개한 벚꽃과 꽃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꽃잔치는 평범하고 소박하

지만 소중한 일상이 우리에게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꽃 전시회는 꽃 전시장 내부에 유채꽃을 심어 봄의 기운을 한껏 돋우고 팬지, 마가렛, 비올라 등 봄꽃 21종, 1만 본이 넘는 수량의 봄꽃을 심어 말 그대로 꽃의 향연을 벌일 계획이다.

허흥기 시 녹지정책과장은 "그 동안 봄꽃 전시회를 즐기지 못했던 시민이 모여 봄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꽃 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인천광역시시는 4월7일부터 23일까지 인천대공원 꽃전시관에서 '2023 인천 꽃 전시회'를 연다.

인천시



인천시설공단 창립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다. 인천시설공단

### 인천시설공단, 창립21주년 행사 직원들, 새로운 변화 혁신 다짐

인천시설공단은 24일 인천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행사는 공단의 지난 20년여간의 발전과 성과를 기념하고 인천시 생활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역대 이사장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으며 김종필 이사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스내린 축하 스피치 직원 축하공연 스피치 발전에 기여한 직원 표창 스피치의 미래와 인천시 APEC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임직원 모두 참여하는 플로깅 캠페인으로 인천대공원 장수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했다.

김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임직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설운영 전문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단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 금천구, 서울시 공모 '교육지원 협력사업' 선정

### 3억 원 확보... 교육 격차 해소 목적 '4대 체험학교' 등 14개 사업 추진

서울 금천구는 서울시가 공모한 '2023년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

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는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금천구는 건강, 과학, 환경, 뮤지컬을 바탕으로 한 '4대 체험학교'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속 영어교실'

'신나게 DO! 자존감 UP!(교육돌봄)'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이래로 깊어진 계층 간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를 위해 4대 체험학교 사업



서울 금천구는 서울시가 공모한 '2023년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금천구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 '화성 뱃놀이 축제' 시민 참가자 모집

###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경연 참가팀 대상

화성시의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는 6월9일부터 11일까지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화성 뱃놀이 축제는 '희망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를 슬로건으로 요트 승선, 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다채롭게 채울 예정이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리형 댄스 퍼레이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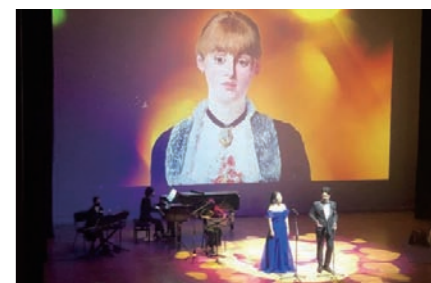
전곡항 입구에서부터 메인 행사장에 이르는 약 100m 구간을 댄스도 물놀이 준비가 된 곳 있는 시민팀을 모집한다.

경연으로 진행되는 댄스 퍼레이드는 장르 구분 없이 거리에서 퍼레이드 퍼포먼스가 가능한 15명 이상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바다, 파도, 배 등 축제 이미지에 부합하는 주제를 갖고 축제장을 뜨겁게 물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 관계자는 "축제를 더욱 즐겁게 즐기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경연의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을 모집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수원문화재단은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 '살롱드아트트리움 시즌 3' 첫 공연을 4월26일 오전 11시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수원문화재단

### 수원문화재단, 브런치 콘서트 '살롱드아트트리움 시즌 3' 선사

수원문화재단은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 '살롱드아트트리움 시즌 3' 첫 공연을 4월26일 오전 11시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2021년부터 9회 공연을 진행했다. 4회 전석 매진을 기록해 수원SK아트리움의 대표 브런치 콘서트로 자리 잡았다.

미술과 음악이 결합한 공연 '살롱드아트트리움 시즌 3'는 거장의 작품을 해설과 함께 미디어아트로 감상할 수 있으며 화려한 영상미와 색감으로 탁월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공연을 진행한다. 밀레, 수잔 발라드, 벨라스케스, 라파엘로 등 총 4인 미술계 거장들의 풍성한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공연 관람권 가격은 전석 1만원, 4월부터 8월까지 패키지권 구매 시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화성시의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 6월9일부터 11일까지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열린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축제에 앞서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경연 참가팀을 모집한다. 화성시



서울 서대문구는 신촌 청천동 일대 상권(이미지)이 최근 '2023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서대문구

## 서울 대표 'K-골목' 만들어 신촌상권 활성화

### 서대문구, 사업비 15억 원 투입... LP바·맛집·문화공간 등 콘텐츠 창출

서울 서대문구는 신촌 청천동 일대 상권이 최근 '2023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열정(Passion) 창천 역동적인(Dynamic) 창천' 구현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세대 공감 울드 앤 뉴'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연세로13길에서 연세로5다길' 일대 12만8500㎡ 면적으로 996개 점포가 있다.

구는 LP바, 맛집, 문화공간 등 다양한 업종 간 협업을 매력 있는 콘텐츠를 창출해 대화문화와 음악공연 중심의 신촌 청년문화를 싹틔우고 '서울 대표 K-

골목'을 만든다는 목표다.

먼저 올해에는 상인과 임대인을 비롯해 연세대 등 지역 내 관계 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상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대문구 상권강화기구 상권협의회의 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며 상권 비전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4, 2025년에는 로컬 브랜드 점포,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가치 창출자), 액티비티 공간과 협업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창출 스토리텔링과 윈스톤 골목코스 개발 스토리텔링과 상권 경영 안정화 등을 꾀한다.

사업 추진을 담당할 '상권 강화 기구'는 올해는 서울시 용역으로 운영되고 2024년과 2025년은 서대문구가 직접 맡는다.

특히 확보한 예산 외에도 신촌동 상가 변영회에서 자부담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로 젊음과 활력의 신촌을 되살리고 이곳의 성공 사례를 이대 상권까지 확장시켜 신촌 이대 상권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올 들어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대 상권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등 장기간 침체돼 온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